제목 :화양연화

장르 :성장물

형식 :나레이션

레퍼런스 : **두식이에게** https://youtu.be/rwpV0771eH8?t=72

윤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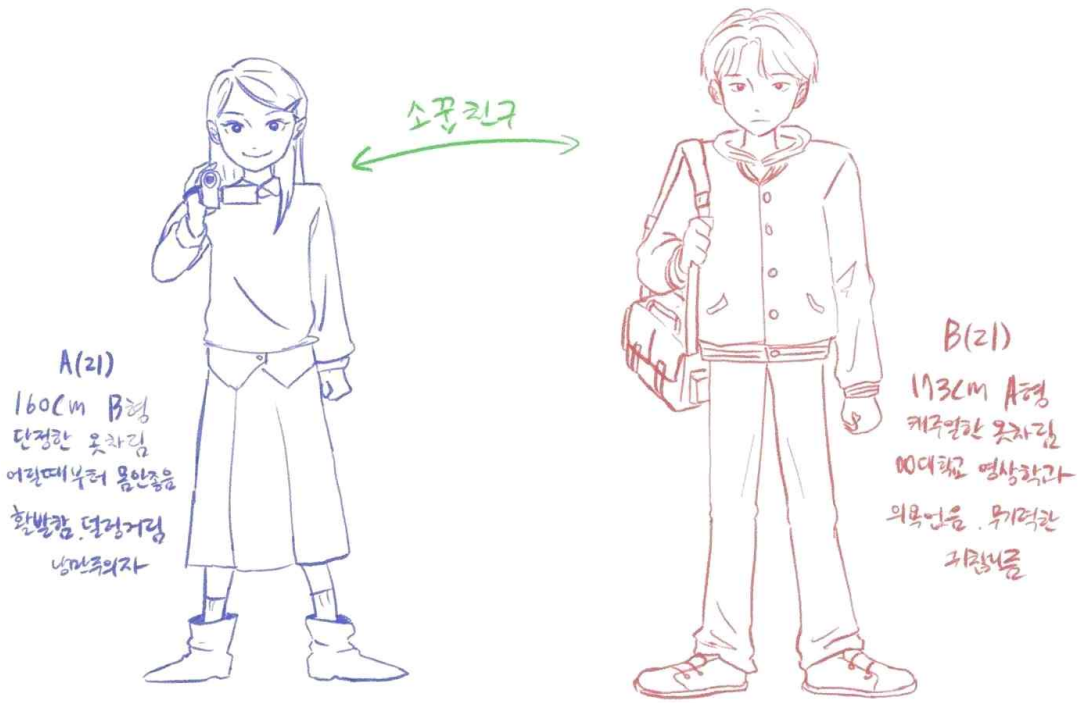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s5gn7sslsql

키워드 : 시한부, 청춘

기획 의도 :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A,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장 아름다울 20대의 모습을 남기기 위해 친구 B에게 영상을 배운다. 어린 시절 해보고 싶던 버킷리스트를 따라 마지막 시간을 B와 함께 보내는 모습을 담는다. B도 이러한 A로 인해 영상에 다시 한 번 열정을 갖게 된다.

<캐릭터>

A : 한보미 B : 류준영



<시놉시스>

1. 기승전결

발단 : 아픈 주인공 a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파서 못했던 것이 많았다. 우연히 초등학교 때 쓴 그림일기장을 보고 남은 여생 동안 할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

전개 : 대학에서 자신의 전공을 정해서 왔지만 교수님들의 혹평에 b는 점차 의욕을 잃어가는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소꿉친구 a가 무턱대고 촬영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한다. 의욕을 잃고 미래가 두려운 b는 아무것도 안하고 과거를 쫓고 있는 a가 한심 하지만 연민으로 도와준다. 이곳 저 곳을 돌아다니며 착실하게 버킷리스트를 수행하면서 열심히 촬영을 이어가지만

위기 : a의 덜렁거림에 학과에서 빌려온 장비들이 부서질 뻔하고 b가 a에게 큰소리를 지른다. b에게 크게 혼난 뒤 풀이 죽어 있는 a에게 가서 위로를 하며 다시금 a의 열정을 본 b는 다시 촬영을 차근차근 가르쳐준다.

절정 : 열심히 촬영하는 a의 모습을 보고 b는 다시금 영상에 흥미와 의욕이 생긴다. 둘이 함께 마 지막 버킷리스트를 수행하고 a는 b를 떠난다. 전화로 a의 소식을 들은 b는 a가 남긴 자신의 캠고더와 영상이 담긴 usb를 발견하고 영상을 본다.

결말 : 함께 했던 초등학교 시절이 자신에게 있어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나의 소중한 순간과 마지막 순간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a의 전하지 못한 진심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로 영상이 마무리 된다. 영상을 보며 오열하는 b로 마무리

2. 스크립트

Scene #1

<a의 방안 (학회실)>

a는 책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어린시절 그린 오래된 그림 일기장을 꺼낸다. (그림일기 안에는 b 와 같이 노는 일상이 가득하다.)

이내 뭔가 결심한 듯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Scene #2

<00대학교 영상학과 과방 (학회실)>

평소 영상 찍는 것이 좋아 대학도 영상 관련해서 왔지만 자신이 생각 한 것과 달라 의욕을 잃고 과방에서 멍 때리는 b. 옆에는 과제로 빌린 촬영장비를 보며 한숨을 쉬며 다시 과제 시나리오를 짠다.

(밖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린다)

학생들 : 여기 안에 있어요.

소꿉친구인 a가 과방 문을 열고 b를 쳐다본다.

A : 네가 왜 여기있어..?

B : 야 나 영상 찍는 법 좀 알려줘.

깜짝 놀라는 b를 보며 a는 자신에게 영상찍는 법을 알려달라고 한다.

Scene #3 pm 12:00

<00대학교 안 (예마당 or 부경대)>

b는 바쁘다며 짐을 싸가지고 나온다. a는 b를 끈질기게 쫓아가며 요구를 한다.

B : 거 진짜 비싸게 구네 찍는 법 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A : 귀찮게 왜 이래 백수인 너랑 다르게 나 바쁘거든?

B : 조금만 시간 내주라 알려주면 앞으로 귀찮게 안할게 응? 응?

b는 귀찮은지 짜증을 내다가 단 하루 자신의 공강시간을 내준다고 한다.

A : 하아...알려주면 귀찮게 안 할거지?

B : 응! 당연하지!

A : 그럼 다음주 화요일 하루만이다?

B : 진짜? 나중에 딴말하기 없기다? 나중에 다시 연락줄게! 안녕!

기뻐하는 a는 내일 만나자며 하며 집으로 b와 헤어진다.

Scene #4 (주말) pm 12:00

<00초등학교 앞 (광안초등학교)>

a는 b와 함께 다닌 초등학교 안에서 촬영하기를 원한다.

B : 찍고 싶은게 뭔데 여길와?

A : 여기 진짜 오랜만이지? 짠~!

B : 이게 뭔데?

A : 내가 그린 그림일기! 여기에 내가 아파서 못한게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 초등학교때 못했던거 다 해보는거 찍을 거야! 버킷리스트! 요즘 유행이잖아!

B : 넌 할짓도 없냐?

b는 자신이 옛날에 그린 그림일기를 보여주며 어렸을 때 아파서 못한 버킷리스트를 수행하는 모습을 촬영할거라고 B에게 말한다.

둘이 돌아다니며 추억에 젖어 있는 a와 다르게 b는 빨리 가르쳐주고 집에 가고 싶어 한다.

(버킷리스트1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불량식품 사먹기)

B : 뭐가 제일 맛있는데? 이거 먹는거야? 왜 이렇게 생겼어?

A : (아폴로 두손으로 비비면서) 뭐야 한번도 안 먹어봤냐?

B : (아폴로 통째로 씹으면서) 응 엄마가 몸에 안좋다고 먹지 말라고 했어 (질겅질겅) 이거 원래 이렇게 맛없어?

A : 뭐야 진짜 안 먹어봤네? (아폴로를 한입에 먹는다) 이제 또 뭐 할건데?

(버킷리스트1 철봉 한바퀴돌기)

A : 야 찍고 있지 나 이제 된다?? 하하 너 거꾸로 보여

B : 캠코더 떨어뜨리지나 마!

(버킷리스트2 체육대회에서 1등하기)

A : 준비 땅! 하면 출발이다?

B : 야 난 카메라 들고 있는데 불리한 거 아니야?

A : 준비 땅!

B : 야 밀면 어떡해??

(+땅따먹기, 그네타기, 분식집가기 등등)

---

b가 가르쳐줘도 a는 장비를 미숙하게 다루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버킷 리스트를 수행한 (다. 의욕을 잃고 미래가 두려운 b는 아무것도 안하고 과거를 쫓고 있는 a가 한심하지만 연민으 로 도와주러 했지만 촬영보다 버킷리스트를 수행이 중요해 보이는 a를 보고 b는 화를 내며 a에 게 가르쳐 준대로 해보라고 신경질적으로 촬영 장비를 준다.

B : 야 이제 네가 찍어. 가르쳐준거 기억나지? 뭐부터 해야해?

a는 서투르게 다루다가 장비를 땅에 떨어트린다.

A : 아야!

B : 야 내가 조심히 하라고 했지? 아 이거 빌린건데 내가 삼각대 고정 잘 되어있는지 확인해라고 했지?? 안 듣고 뭐했냐?

A : ...

B : 시간 내줘서 와줬더만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그냥 갈게.

b는 학과에서 빌린 비싼 기자재를 험하게 다룬 a에게 크게 화를 내며 짐을 싸고 집에 가려고 한다.

Scene #5 pm 13:00

<골목길 (아무대나)>

b는 마지막으로 본 a의 표정이 신경 쓰여 다시 발길을 돌린다.

B : 아 씨...

Scene #6 (주말)

<다시 00초등학교 (광안초)>

b는 그네에서 울고 있는 a를 보며 옆에 앉아 음료수를 건낸다.

B : 뭘 잘했다고 울고있어..

***A :** B야... 정말 미안해 나 진짜 너한테 영상 배워서 오늘 너랑 함께한 순간 영상으로 담고 싶어근데 너랑 있으니까 재밌어서 집중 못했나봐 정말 미안해 진짜 열심히 배울게 그니까 그냥 가지마...*

미안해,,미안해,,

그런 b를 보자마다 눈물을 훔치며 a는 b에게 사과를 하며 영상을 배우고 싶다고 말을 한다.

b는 a에게 차근차근 가르쳐주며 열심히 촬영을 임하는 a를 보며 자신도 열심히 촬영을 하며 즐거워하는 b.

B : 그래서 여기서만 찍을거야? 다른곳은 안가?

b는 a에게 마지막으로 찍고 싶은 곳은 어디냐고 물어본다.

Scene #7 pm 15:00 ~16:00

<다대포 해수욕장>

장소로 이동하느라 숨차는 a를 걱정하는 b.

저녁이 되니 쌀쌀한지 떨고 있는 a에게 자신의 목도리를 둘러준다.

B: 추운데 왜 이렇게 입고 왔어?

A : 헉...헉...고마워...

a는 초등학교 때 아파서 못 왔던 소풍장소로 꼭 한번 와보고 싶던 곳이라고 말하며 b랑 같이 오고 싶다고 말한다.

A : 여기 항상 소풍으로 왔던 곳인데 기억나?

B : 아 맞네 그때는 지겨웠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반갑다.

A : 너 항상 여기서 보물찾기 했다고 나한테 말해줬잖아 나도 해보고 싶는데 네가 못 찾은 거오랜만에 같이 찾아줄까?

B : 야 있겠냐? 너도 못 찾아 그만해

A : 그건 너라서 못 찾은 거고 난 어디 있는지 알거 같거든?

B : 거기 있겠냐? 그만해 손만

더러워져 A : 어?!

B : 왜? 왜?!

A : 야 내가 뭐라고 했어 여기 있다고 했지 뭔지 열어봐

기대하는 모습으로 캡슐을 여는 b.

B : 엇 열쇠고리네 네가 찾았으니까 그냥 너

가져라 A : 왜 이거 너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거

잖아?

같이 걷는 a,b

B : 애도 아니고.... 그냥 너 가져 그럼 여기가 마지막이야?

A : 응... 난 항상 소풍때 아팠는데...너랑 꼭 한번 여기 오고 싶었어.

깜짝 놀라서 멈추는 b.

B : 뭐?

a는 풍경을 보며 촬영을 도와준 b에게 감사인사를 건낸다.

A : 오늘 촬영 도와줘서 고마워 재밌었어.

둘은 서로를 보며 웃으며 다시 풍경을본다.

Scene #8

<00대학교 영상학과 과방 (학회실 or 408호 뒷방)>

(핸드폰 안 a어머니 발신)

B : 아 네 아줌마 안녕하세요?

촬영 이후 연락을 해도 한달 간 소식이 없던 a의 소식은 a의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미 떠나간 a가 b에게 남긴 물건을 부모님에게 받고 열어보니 a에게 준 목도리와 그림일기, usb 가 들어가 있다.

b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a가 만든 영상을 시청한다.

(컴퓨터 안)

a와 b가 함께 촬영한 영상이 담겨져

있다.b는 영상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영상이 끝나고 a의 영상편지가 나온다.

A : 되고 있는거 맞나? 안녕 B? 아까 안되서 지금 다시찍는데 3번째다?

B : 풉....가르쳐준거 다 까먹었지...

A : 아 뭔말부터 하지? 아~ 다 까먹었네 암튼 촬영 도와줘서 고맙다! 너 덕분에 내 마지막을 영상으로 남길 수 있어서 좋았어. 미리 말 못해줘서 미안해.

너랑 짧지만 함께 했던 그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다시 너랑 같이 못 해봤던 걸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는 게 내 최종 마지막 버킷리스트였다? 너랑 같이 그 시절로 돌아가서 영상을 찍으니까 너무 행복했어. 나한테 촬영 가르쳐줘서 고맙고...그리고

미안해...

근데 너 하기 싫다 해놓고 마지막에는 네가 더 열심히 하더라?? 너 영화감독 되는거 꿈이랬지?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거야. 하아... 말이 길어졌네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

그럼

....

안녕

잘 지내.

a는 함께 했던 초등학교 시절이 자신에게 있어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나의 소중한 순간과 마지 막 순간을 b와 함께하고 싶다는 a의 전하지 못한 진심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로 영상이 마무리 된다.

b는 영상을 보며 흐느끼며 오열한다.

Scene #9 pm 15:00 ~16:00

<다대포 해수욕장>

(5년 후)

다시금 그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B.

B : 내 인생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은 너와 함께 하는 순간이었다....

[준영이 시점]

인트로: 보미의 그림 일기장을 들고 다대포해수욕장에 서있는 준영.

[타이틀]

시작: 준영이가 있는 학회실에 문열고 들어오는 보미

보미: 나 영상 가르쳐줘!!!!

중간:

[초등학교 배경]

철봉

달리기

땅따먹기

[문방구 배경]

불량식품 사먹기

보미가 갖고싶어했던 열쇠고리 준영이가 몰래 사기

[다대포 해수욕장]

보물찾기

마무리: 보미의 영상편지

영상미 뒤지는거 짜집기

다시 다대포 해수욕장에 그림일기장 들고 서있는 준영(보미 디졸브)

화양초

연화초

보미가

봄이가

봄이, 가